

보 도 자 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6.7.22.(수)/ 총 3매 (본문 2매, 붙임 1매)	
자료 제공	• 해운물류·해사연구본부 국제공급망연구실 - 조지성 실장(051-797-4916)/한예은 연구원(051-797-4645)	
배포 부서	• 성과홍보실(강자운 행정원 051-797-4396, 이선우 실장 051-797-4381)	
보도 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산업 · 해운물류 공급망 협력 위해 맞손

- 정책연구와 현장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 해상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조정희, KMI)은 7월 22일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KOBC)와 ‘해운산업 및 해운물류 공급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해운·물류 부문 정책연구 및 산업 데이터 분석 역량을 연계해 해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AI 기반 해상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6일 대통령 주재 해양수산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AI 해상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연구·데이터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물류 공급망 조기경보지수 및 선행지표 개발·고도화 ▲해상공급망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체계 고도화 ▲해운·물류시장 및 해상공급망 정보 교류 ▲해운산업 및 해상공급망 관련 정책연구 ▲데이터·시스템·전문가 네트워크 연계 ▲공동 세미나·포럼·교육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운물류시장과 공급망에 대한 정책연구 및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해운물류 공급망 조기경보지수와 선행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정부의 위기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물류 분야에서 축적한 산업 데이터와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해상공급망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전문성과 정보 역량을 연계해 우리나라 해상공급망의 위험을 조기에 감지·분석하는 AI 기반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상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진흥공사 안병길 사장은 “해상공급망은 국가 경제와 주요 산업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위험을 먼저 파악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해상공급망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된 상황에서는 위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위험까지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기반 해상공급망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해 정부와 산업계의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운물류·해사연구본부 국제공급망연구실 한예은 연구원(051-797-4645, yehan@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한국해양진흥공사(KOBC) MOU 체결 사진



7월 22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개최된 ‘2026년 해상공급망 선진화 및 선제적 대응 정책 포럼’에서 조 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우측), 한국해양진흥공사 안병길 사장(좌측)이 해상공급망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해양진흥공사 간 업무 협약식 자리를 가졌다.

<붙임2> 2026년 해상공급망 선진화 및 선제적 대응 정책 포럼 단체 사진



7월 22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개최된 ‘2026년 해상공급망 선진화 및 선제적 대응 정책 포럼’에서 조 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우측 6번째), 한국해양진흥공사 안병길 사장(좌측 6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해상 공급망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운물류 공급망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